

## “전환지원금으로 전기차 사세요”

남원시, 57억 투입 상·하반기 339대 보급…승용차 120대·화물 78대  
내연기관 차량 매도 후 구매하면 최대 130만원 전환금…6월까지 신청

“전기차 전환지원금으로 새차 구매하세요.”

남원시는 올해 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기 자동차 339대를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보급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전기승용차 120대와 전기화물차 78대를 우선 보급하며 하반기에는 잔여 물량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국가 지원 예산과 전북도 및 남원시 예산을 합산해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특히 청년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확대 지원은 올

해도 지속된다.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가 전 기차를 구매하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환 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 차량(하이브리드 차량 제외)을 3년 이상 보유한 개인이 해당 차량을 폐

차하거나 매도한 후 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최대 13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남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은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접수한다. 신청 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대리점)를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에 구매 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전기자동차는 전북도 내에서 8년간 차량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직원 전입 유도하는 기업에 최대 200만원

정읍시, 유공기관·단체 등 소속 직원 2명 이상…예산 소진시까지

정읍시가 직원의 전입을 유도하는 지역 내 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현금 인센티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입 유공 기관, 단체, 기업으로 소속 직원 2명 이상이 정읍시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1인당 20만원,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준일인 올해 1월 1일 이후 타 지자체에서 정읍 시로 전입한 뒤 3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인센티브 지급시점까지 정읍시에 주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입자의 주소 변

경 이력이 포함된 즘민등록 초본,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 까지 연장 가능하다.

자세히 내용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신청처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인구 문제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지역 내 모든 기관과 단체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전입 유공 인센티브 지원이 민·관·상생으로 정읍시의 인구 위기를 극복해 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춘향제 알릴 기발한 아이디어 찾습니다

남원시, 다음달 2일까지 공모전…총 1000만원 상금

남원시가 오는 4월 개최되는 제96회 춘향제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차별화된 홍보를 위해 ‘제96회 춘향제 홍보 콘텐츠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3월 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총 1000만원 규모의 상금과 함께 남원춘향제전위원장상이 수여된다.

공모 분야는 ▲무빙포스터 ▲포스터 ▲홍보영상 ▲기타 등 총 4개 부문으로, 참가자는 희망하는 1개 분야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형식이나 장르에 제한이 없으며, 춘향제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창의적인 홍보 콘텐츠와 아이디어라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포스터에 삽입된 QR 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기발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춘향제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진 춘향제의 매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창의적인 크리에이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시설·기후 최적…고창군 ‘동계 전지훈련 명소’ 부상

축구·야구·골프·풋살장 등 갖춰  
이달까지 학생 선수단 450명 훈련  
호주·중국 외국 선수단도 체류중

고창군이 동계 전지훈련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고창군은 최근 겨울철 합숙 전지훈련을 위해 고창군을 찾는 유소년·학생 선수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동계 전지훈련 기간(12~2월) 학생 선수단 450여명이 지역에 체류하며 훈련을 소화했다.

농구와 씨름, 야구, 태권도 등 종목도 다양하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호주와 중국의 태권도 초·중등부 선수들이 고장을 찾았다. 외국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양한 종목의 선수단의 합숙 훈련이 이어지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고창군이 수준 높은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전북도 양대체전 개최를 앞두고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해 관내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했다.

스포츠타운에 축구장 3면과 야구장 1면, 실내야



씨름 종목 학생 선수단이 고창군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

구 연습장이 조성되면서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훈련도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과 풋살장,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도 갖추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외국 선수단 방문을 통해 고창군의 국제 전지훈련지 가능성도 확인했다”라며 “시설 관리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정읍시, 방치된 공유재산 팔아 세수 확보

자투리 토지·유휴건물 등 발굴 세수 10억원 확보 방침

정읍시는 활용 가치가 낮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공유재산 100여건을 매각한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활용도가 낮은 소규모 자투리 토지와

장기간 방치된 유휴건물을 정리해 10억원 이상의

세입을 확보할 방침이다.

매각 대상은 일반재산 중 대부 계약지나 유휴지 등이다. 행정재산에서도 면적 10~660㎡인 소 규모 사업 잔여지 중 행정 목적을 상실한 토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건물 중에선 활용도가 떨어진 신태인 포도체험센터, 옛 감곡종합복지회관, 동심원 등이 매각 대상에 포함됐다.

이수수 정읍시장은 “관리효율이 낮은 소규모 토지 등을 정리해 행정 비효율을 개선할 것”이라며 “특히 시유지와 맞닿은 사용지 소유자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복분자 추출물로 여성 질환 개선 ‘기술 특허’

고창식품산업研 출원…남성 호르몬 농도 줄여 배란 정상화

고창군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지역 특화자원인 복분자의 추출물을 활용해 여성 호르몬 불균형 질환을 개선하는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

이는 군 의뢰로 진행된 ‘고창 복분자의 여성 건강 기능성 규명 연구 용역’의 결실로 복분자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여성 호르몬 불균형 질환의 예방·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 호르몬 불균형 질환이 호르몬과 대사 문제를 함께 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지역 특화자원의 기능성 근거를 확보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실험 동물에게 복분자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배란을 방해하던 호르몬(LH/FSH 비율)이 정상화되고 과도하게 높았던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고창 복분자. 〈클립아트 코리아〉

박생기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원장은 “이번 특허는 고창 복분자의 활용 범위를 여성 건강 분야로 넓힐 중요한 성과”라며 “추가 연구와 산업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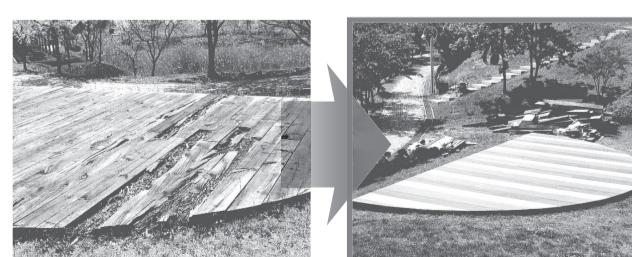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